

용감한 여성이 사는 완성골!

하나된 몸짓으로 희망꽃을 피웁니다.

세상을 여는 나! 나를 여는 여성사랑!

1.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난후

1) 식언지 땅호 태어나 -이 땅 여성으로 살다는 것은

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민족적 강간, '강제 일본군 종군 위안부(정신대)'-

@1달에 1번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동참하여 외로운투쟁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들께 힘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학내 정신대 할머니 후원회 건설을 추진하여 민족 복원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의 노력을 전개해나가겠다.

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 범죄-침묵하는 한국 정부-

@대구에도 미군클럽과 기지촌 여성이 많지만 다른 지역처럼 기지촌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지촌 활동이 매우 어렵고 지금 우리의 역량만으로는 조금 힘든점도 있지만 기지촌 여성 실태 조사나 클럽 방문 등 기지촌 활동을 가속화시켜나가고 서울 경기지역과 같이 기지촌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파견 활동을 보내는 등 기지촌 여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한다.

2) 문명독재 시대에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김영삼의 허구적인 여성 정책-

가. 성추락 당한 여성이여 침묵하라!!!-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통해서 본 학내 성폭력

@학우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의 형식은 강연, 토론회등도 있겠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여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김정권의 여성 노동 정책-출산, 생리 휴가의 무급 전환과 여성 가산점 제도, 근로자 파견법

3) 승리하는 여성운동-지자체 승리한 총선, 대선 승리 투쟁을 위하여

4) 세계속에서의 한반도 여성들-베이징 세계 여성 대회-

자세한 내용은 자주 총여 정책 자료(그대! 역사의 반을 만드는 여성들)에 있음

2. 95년 민족 복원 여학우들의 삶의 현주소

자료 참고

3. 농대 여학우들의 삶의 현주소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모순과 억압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으로서 해결하려고 한다.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속에서도 그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되버려 좀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통일을 염두에 두고 삶을 고민하는 것이 자주여성의 진정한 모습일것이다.

****여학생 운동**

여학우 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 민주, 동일과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대중 의식화, 조직화사업, 투쟁 사업을 자신의 일차적 임무로 한다.

-여학생 운동은 우선 지금까지의 제도교육에서 주입받아왔던 성차별 의식을 없애나가기 위해 남녀 공히 바른 여성관과 인간관을 심어줄수 있는 교육 내용을 쟁취해야 한다. 그외 교과과정속에 있는 남녀 차별주의 내역을 일소해야 할 과제가 있다.

-또한 제국주의에 의해 학원에 까지 만연해 있는 성차별, 성폭력 문화를 학원에서부터 추방하고 이를 대신할 건강한 문화를 양산한다.

-여학우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지금 사회 진출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내야 한다.

- 그리고 기층 민중 여성의 생존권 투쟁의 지지, 지원 및 각 계급 계층 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 모순을 야기시키는 지배 계급에 대한 투쟁을 벌여낸다.

4. 단여운위와 여연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발전 시킬데 대하여

<농대 여학의 과여학생회운동을 준비한다>

1). 단여 운위 강화

단여 운위의 강화는 각 운위를 믿고 그들의 책임성을 드높여 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될것이다. 스스로가 과여학우들을 책임지고 농대 여학생회를 운영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여와 단여와의 관계, 여학생회 내용의 교양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것이 운위의 사상성을 높여주어 책임성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과여짱의 끊임없는 교양 사업이 이루어지고 각 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과여가 단여를 중심으로 묶이고 제자리를 잡아가야 할것이다.

=>운위회의는 실제 여학생회 사업을 공유하고 논의의 장이 되어야한다.

=>**과여학생회발전 소위원회**를 만든다.

(운위 중 한명이 결합하여 단여짱과 함께 과여학생회 사업(운위 회의)을 고민하고 지도해낸다.

소위의 역할은 운위 회의가 좀더 발전된 형태가 될것이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과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해낸다.)

2)여연의 지도를 강화한다.

실제 주체를 맡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이후 사람을 키워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여연 짱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갖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농대 여학생회에서 **단대여연을 건설**한다.

이후 각 과에 들어가 여연을 만들 주체를 키워내는 것이다.(이를 맡을 사람 또한 부재하지만 95년에 여연을 했던 사람으로서 같이 공부하면서 스스로 단련시키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과여연에 실천 지침을 지도**한다.

농촌 탁아소 방문 또는 기지촌 활동, 정신대 할머니 후원회등 여연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들의 삶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좀더 심신이 튼튼해진다. 이것은 여학생회와 여연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과정이 같이 동반되어야한다.

5. 여학우들이 진정한 여학생회의 주인으로 설수 있는 대중사업

1)한가위 와성 여성 큰 잔치

기존의 가을걷이 한마당에서 여학이 해왔던 대중사업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가 된다. 시기가 한가위이니 민속놀이(송편빚기, 널뛰기, 투호 등)가 고민이 된다. 이것은 과여학생회장을 발동시켜 지금은 내용적(전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1300 와성 여학우가 어울릴수 있는 자리여야한다. 공동체 삶을 실제로 체현할수 있어야 한다. 96년의 역량을 타진해보고 열리기 힘들다면 가을걷이에서 여학생회 대중사업의 모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여학우가 진정으로 참여할수 있는 내용의 사업을

고민한다.

6. 내 삶에 가까운 여학생회

여학생회 사업의 공개성과 간부들의 헌신성으로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다.

95년 총학생회사업에서 직접 민주주의 모범이었던 아침이슬 투쟁을 단역에서는 한달에 한번으로 정기적인 사업으로 시도한다. 그리고 소리통과 같은 학우들의 참여공간을 농대 여학생회장의 호출기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여학생회에 하고 싶은 말을 쉽게 할수 있는 공간으로 좀더 실질적인 참여가 될수 있도록 한다.

7. 여학우가 살맛나는 농대 와성골

=>2호과 여휴 정말정말 관리 잘 하자

=>화장실 자판기 관리 잘 하자

한마디로 있는거나 잘 하자